



법사 방필석

잘될 사람이 받는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아호★

아호

★ 잘될 사람이 받는 아호 ★

훌륭한 분 공통점이 본 이름을 그냥두고 존엄한 아호를 받아 그 뜻을 이해하고 실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호 峨山 鄭周永 前 현대그룹 총수
아호 湖巖 李秉喆 前 삼성그룹 총수
아호 巨山 金泳三 前 대통령

아호는 人生의 바른길로 인도하는 스승과도 같고 곧 황금열쇠와 같느니라.
아호는 신생아때부터 받아도 좋다. 아호는 인연이 달아야 받습니다. 아호는 잘된사람이 받아 잘된것 아니요, 아호를 받아 잘된것이요. 내가 앞으로 잘되기를 바란다면 지금이라도 잘될것을 행하라.



아호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아호 설명서 첨부

방필석 대내외활동

- 前 대통령 영식(아들) 아호 찬명(받아감)
- 前 대통령 손녀딸 찬명
- 前 인도 대통령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대통령 각 3회 초청 방문
- 前 스리랑카 문화부장관 초청방문
- 前 스리랑카 수상 서울 보명사 공식 방문
- 2011년 인도 세계불교대회 초청 방문
- 서울 보명사 창건 공덕주

♥ 남편에게 주는 아호 ♥

현명한 내내는 남편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부부는 이성지합이라 백성을 낳게하는 시초이고 만복의 근원이다.

천생 인연으로 맺어진 조강지처를 사랑하고 소중히 섬겨라 아버지가 어머니를 그리해야 했듯이 아내를 그와같이 해야하느니라 그리할때 천신이 도와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재물있고 명예와 권세가 있다 해도 조강지처를 잘 섬기지 못하면 어디서 무엇을 잘될것을 얻으려 하십니까?

신생아 작명

弟子 入門 歡迎



작명증서는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작명 설명서 첨부

★ 귀(貴) 자녀의 출생을 축하합니다 ★



본연구소에서 작명 아호를 받은 인연으로 동자 신준원을 스리랑카 대통령님이 안아 주시는 영광. 사진 왼쪽부터 동자 어머니, 대사관직원, 법사 방필석.

신생아는 춥다, 덥다 표현이 어려우니 환경이 안 맞으면 우는 것이 곧 언어이다.

부모가 춥다, 덥다는 부모 체질에 맞는 환경은 부모는 좋지만 부모와 체질이 다른 아기는 고통스러울 것이다.

본 연구소는 체질, 적성, 성격 등을 참조하여 지은 이름은 아기를 건강하게 하고 축복된 삶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작명은 예로부터 오늘날까지 소중히 여겨오는 것입니다.

★ 자녀들의 이름이 무슨 뜻인지 알고 계십니까? ★

현명한 부모님은 소중한 자녀들을 귀(貴)하게 하느니라!
귀(貴)하고 소중한 자녀의 이름과 아호는 가격으로 따질 수 없는 보배이다.

자기 이름 뜻도 모른다면 어디서 무엇을 따로 알 것을 구하겠는가?
대다수 획수 작명은 말은 되지만 뜻이 맞지 않으니
뜻있는 곳에 참 이름이 있네! 뜻 있는 곳에 씨앗을 뿌리게나!
바윗돌에 씨앗을 뿌리면 싹이 트겠는가?

한 장소에 27년 경영 국가공인 한자 1급 12번 합격

♪ 가정을 행복하게 하는 전화 ♪ 전화 02)739-8259, 02)738-5577 국내외 우편발송

우리은행 : 306-07-194422 / 농협 : 053-02155-065 예금주 : 방필석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43(견지동) 등용문빌딩 201호(종각역 2번 출구 조계사 옆)

한국민속철학연구소 법사 방 필 석